

1) 동정

- ▶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 ▶ **박화준**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5월 4일 회원업체로부터 정성껏 모금한 성금을 노인들에게 무료급식비로 사용해달라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 ▶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4월 23일 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비 인상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 ▶ **오규남** 한국인쇄학회 회장은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 **전웅진**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오는 6월 11일과 13일 중국 청도에서 '한국잡지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잡지발행인 세미나를 연다.

2) 화촉

- ▶ **김강** (주)성전기획 대표이사의 장녀 한아양이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신라호텔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이도상** 성도지엘 부사장의 장남 규창군이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장석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임와수** 성림문화사 대표의 장녀 민아양이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30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화촉을 밝혔다.
- ▶ **김민곤** 삼진문화사 대표의 장남 중윤군이 지난 5월 9일 오후 5시 라루체에서 화촉을 밝혔다.

3) 변경

- ▶ (주)계슈타포(대표이사 장석렬)는 최근 상호를 제이에스인쇄주식회사로 변경했다.
- ▶ (주)동도싸인퍼의 대표이사에 김소연 씨가 최근 취임했다.
- ▶ 세훈사신문화사대표 최경식은 최근 상호를 한국사진앨범세훈인쇄(주)로 변경했다.
- ▶ (주)타라티피에스의 대표이사에 최근 박영호 씨가 취임했다.

4) 이전

- ▶ 동방기업(대표 서명용)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87-3 신영빌딩 210·204호로 이전했다.

:: 인쇄단체 · 기관뉴스

Association news

나기주 문화부 출판인쇄산업과장 인협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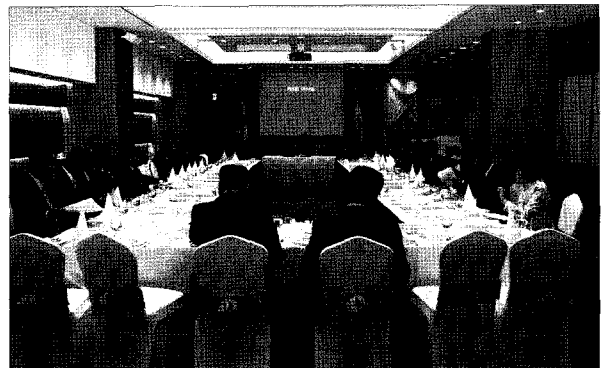
최근 취임한 나기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 과장은 하재열 사무관, 장현익 주무관과 함께 지난 5월 11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방문, 협회 운영상황과 인쇄업계의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오세익 인협 전무이사의 현황설명 후 홍우동 회장은 "지식산업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야 자생적 환경이 조성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쇄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과 세계인쇄대백과사전의 발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나기주 과장은 이에 대해 "인쇄업계의 현황을 잘 알겠으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인쇄문화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인협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은 지난 4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PJ호텔에서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09년도 사업추진현황, 정관개정안 등 상정 의안들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홍우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오시는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4 분기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이어 왔다며 남은 기간에도 내실 있는 협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인쇄연합회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지난 5월 15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2009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신입이사 소개,

개회사, 전차의사록 낭독, 업무 집행상황 보고, 2009년 1/4분기말 재무제표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충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쇄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쇄업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각 지역의 이사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사업보고 및 모든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한솔PNS 인쇄시장 침식 피해 사례 접수

서울인쇄정보조합은 한솔그룹의 계열사인 한솔PNS(전 대영인쇄)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사의 실제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피해 사례가 있는 조합원사에서는 업체명과 거래처, 물품명, 금액 등을 기록하여 조합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조합은 접수된 조합원사의 침식 피해 사례를 중기청에 보고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생존권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_ 333-8631 팩스_ 334-8731 이메일_ seule@naver.com

서울인쇄조합 책자인쇄부회 야유회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책자인쇄부회(간사장 김남수)는 지난 4월 24일~25일까지 1박2일 동안 책자부회 부부동반 봄맞이 여행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야유회는 동백꽃으로 유명한 선운사를



시작으로 내장산, 전주, 무창포, 대천해수욕장, 광천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선운사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있어 연등이 하늘을 가득 메워 장관을 이뤘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해설사가 선운사와 불교에 대한 설명을 해 줘 불교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봄맞이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각종 먹거리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풍천장어를 비롯해 전주한정식, 대천 꽃게 찜과 매운탕, 유람선에서 먹은 회 등은 이번 여행의 백미였다. 김남수 간사장은 “봄맞이여행이긴 하지만 집나오면 고생이러는데, 1박2일 동안 간사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라며 “이번 여행을 통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나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쇄정보조합 경영자 세미나 개최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조정석)은 '2009 경영자 세미나'를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설악한화콘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엄길청 교수가 '경제 위기진단과 인쇄산업의 환경전망'에 대해, 김한권 교수가 '중년의 건강관리'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게 된다.

한국HP, 최준근 대표 퇴임



한국HP는 최준근 대표이사가 최근 사임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HP 최준근 대표이사는 “15년간 맡았던 한국HP 대

표이사직을 뒤로 하고, 앞으로 후진 양성에 기여하고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HP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할 때”라고 밝혔다. 최준근 대표이사는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준근 대표이사는 지난 1975년에 삼성 그룹 공채로 입사, 한국HP에 몸담아 왔으며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HP 대표 이사로 역임해왔다.

아그파코리아·한국필름

양사 친선 체육대회 개최



아그파코리아(대표이사 권순기)와 한국필름(주)(대표이사 차익송), 양사는 지난 4월 18일 한국필름의 덕평 창고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제 2차 친선체육대회를 열었다.

아그파코리아는 “이번 친선체육대회는 아그파, 한국필름 양사의 식구들을 지난 2월 4일에 열린 협약식에 이어 마련한 두 번째 행사로 배구, 농구, 족구, 이어달리기, 배드민턴, 줄다리기 등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파트너십을 다질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조합 상업·사무용인쇄부회 안전교육 실시

상업인쇄부회(간사장 남원호)와 사무용인쇄부회(간사장 이기섭) 간사회에서는 각각 지난 4월 15일과 22일 오전 11시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과 함께 '인쇄업종 경영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10년도 공장자동화 관세 할인 신청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는 최근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2010년도 인쇄산업의 공장자동화 품목과 관련한 관세감면 품목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인쇄 자동화 관련 시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쇄업체는 최대 5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감면은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제도다. 인쇄업계는 지식경제부 산하 단체인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도 관세감면 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아 이를 취합해 신청하고 있다. 관세 할인은 각 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입업체는 차년도에 수입이 예상되는 자동화 대상 품목들에 대해 관세 감면 할인을 신청함으로써 최종 수입 시 전년도에 확정된 율만큼 관세를 할인 받게 된다.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China Print 2009 참관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는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의 NCIEC(신중국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었던 제7회 북경 국제인쇄기술전시회(China Print 2009)에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참관기간 중인 11일에는 베이징프랜드십 호텔에서 전세계 12개국 인쇄관련협회장

이 참석하는 포럼이 진행되었다. 김진배 회장은 한국 인쇄업계를 대표해 '한국인쇄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각국 회장단과 전 세계 인쇄시장의 현황 및 트렌드, 국가 및 협회차원에서의 상호 교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관단은 행사 개막일인 12일 개막식 행사를 비롯해 주최측인 중국인쇄 및 설비기재공업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전시회를 집중 관람하고 돌아왔다.

:: 인쇄·프리프레스 뉴스

Printing Prepress news



PACOM 김경수 대표 '경기 경제인 대상' 수상



팩컴코리아(주)(대표이사 김경수)는 최근 경기지역 경제발전전을 위해 헌신한 일꾼을 분야별로 발굴 시상하는 '제1회 경기 경제인 대상'에서 김경수 대표이사가 '수출혁신부문'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팩컴코리아는 이번 수상으로 인쇄산업도 수출에 있어 효과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우리의 인쇄기술과 정부의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결합된다면 지금보다 몇 배의 수출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수 대표이사는 수상소감에서 "우리나라의 인쇄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국내에서 경쟁하지 말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PACOM이 이를 증명해 준다. 지금 같이 고환율이 유지되고 경기가 침체된 때가 오히려 마케팅의 적기가 될 수 있다"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은 기대한다. 그리고 기업도 해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성기계, 신사옥서 이전식 개최



방성기계(대표 장완섭)는 지난 5월 16일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의 신사옥에서 이전식을 개최했다. 방성기계 장완섭 사장은 고객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새로운 사옥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전식에는 인쇄업계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이전식과 새로운 발전을 축하했다.

주소_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726-7
전화_ 031-573-6356 팩스_ 031-573-6358

미성인쇄, 하이델베르크 SM102-4, SE 도입

미성인쇄(주) (대표이사 노재찬)는 최근 하이델베르크의 스피드마스터 SM102-4, SE를 도입,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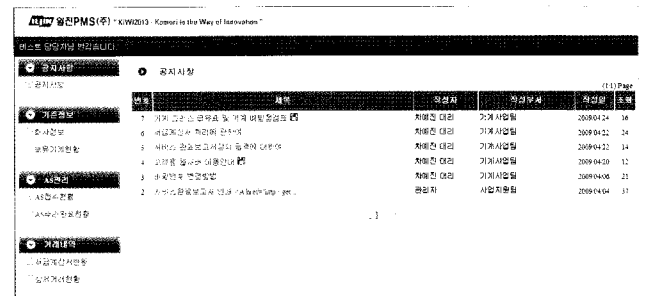
노재찬 대표는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으로 비용효율성 상승 및 최고의 품질로 고객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있다”며 “인공지능과 효율의 결합체인 이번 인쇄기 도입으로 최고품질의 제품은 물론 고객이 요구하는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성인쇄에서 도입한 드루파 2008버전의 하이델베르크 대국전 인쇄기, SM 102는 새로운 버전에서 자동화 사양을 선별적으로 채용, 기본 투자비용을 낮춘 반면 인쇄 속도는 시간당 1만5천매로 더욱 빠른 생산 속도를 자랑한다. 기본적으로 장착된 프리셋 피더는 작업 준비 시간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쇄 작업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들을 모두 갖추었으며 인쇄기 중앙 컨트롤 장치로는 프리넥 CP2000 센터를 이어

탄생한 프리넥 프레스 센터 콤팩트가 사용되는데 탑재된 인텔 리스타트(Intellistart)기능은 작업 준비 시 최고 70%까지 작업 단계를 줄여준다. 이것으로 연간 최대 8%까지 추가적 가동량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컬러 패스트 솔루션 패키지는 최대 60%까지 작업 준비 용지를 절감하며 프리셋 배지부는 규격 설정의 완벽한 프리셋 기능을 발휘한다.

미성인쇄(주)는 지난 45년간 고급 인쇄 및 기획, 전산서식지, 창봉투, DM봉입, DM발송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토털 DM 솔루션을 공급해 왔다.

일진PMS, 전용 ERP 시스템 Kiwi 2013 구축



일진PMS(주)(대표이사 박경재)는 전용 ERP 시스템 Kiwi 2013을 구축하고 고모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체제를 선보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 각 부서가 별도로 작성, 보관하던 각종 자료를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화 및 일원화시켜 전체 부서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복된 업무를 대폭 삭감한다는 점이다. 또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기계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기계 정비이력이 쌓일 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정비 및 관리가 가능해져 기계트러블 발생시 적시에 최적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모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고객전문 사이트에 접속, 지금까지 실시된 기계 정비이력 조회, 서비스 보고서 출력 및 서비스접수 대기순번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출력하거나 미지급금 조회도 가능하다.

일진PMS는 “Kiwi 2013은 2008년부터 준비한 프로젝트로 ‘Komori is the way of innovation’의 약자와 남들보다 5년 앞서가자는 의미에서 2013이 붙여진 이름이며 고모리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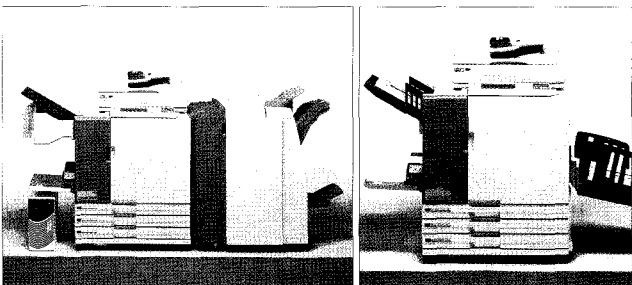
홈페이지_ www.iljinpms.com

코닥, China Print서 통합 그래픽 솔루션 선보

코닥은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나프린트 2009에서 디지털 인쇄기부터 기업용 스캐너, 전문가용 카메라, 포토 현상기에 이르는 다양한 그래픽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의 컨셉은 “찬란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의 향연(Make it brilliant)”으로, 변함없이 “고객의 성장을 돕는 믿음직한 파트너”의 슬로건으로 신중국 국제 전시센터 제 2호관 E2홀 018부스에서 다양한 제품소개와 데모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코닥은 드루파에서 선보였던 버사마크 VL2000을 비롯, 다차원 인쇄솔루션(Dimensional Dry Ink Solution)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코닥 넥스프레스 S3000모델도 전시되었다. 또한, 스테디셀러인 CTP 코닥 매그너스800, 저비용 고효율의 가변데이터 인쇄를 위한 코닥 버사마크 프린트헤드 8600, 코닥 프리너지 워크플로우(데모), 코닥 인사이트 소프트웨어(데모) 등이 전시되었다.

한국코닥 루이스 레백 대표는 전시회를 앞둔 인사말을 통해 “한국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그 동안 환율 상승으로 장비 도입을 망설이셨던 고객에게는 좋은 구입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닥 부스에서는 첫날 신제품 런칭쇼와 프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매일 오전에 CTP와 잉크젯인쇄기, 워크플로의 시연, 오후에는 넥스프레스의 제품 소개가 진행됐다.

리소코리아, ComColor 시리즈 발표



리소코리아(대표 카미무라 토시오)는 최근 고속 사무용 풀 컬러 프린터 ‘ComColor 시리즈’ (ComColor 9050, ComColor 7050, ComColor 7010, ComColor 3050, ComColor 3010)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ComColor 시리즈’는 분당 최고 150매의 인쇄가 가능하며 최저유지비로 높은 생산성과 낮은 운영비용을 동시에 구현한 제품이다. 또한 기존 20초에 머물던 최초 데이터 출력 시간을 8초로 줄인 것은 물론 스캔 출력도 11.5초 이하로 대폭 줄였다. ‘ComColor 시

리즈’는 600만장의 인쇄도 견디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HC시리즈의 양면 인쇄시 인쇄 속도의 저하를 보완, 단면과 양면이 같은 생산성을 구현했다.

또한 환경오염이 적은 식물성 유지(대두유)를 함유한 ‘리소 소이잉크’를 독자 개발해 사용 중인 리소코리아는 이번 시리즈에서도 친환경의 낮은 소비전력설계를 도입, 일반 레이저 프린터의 70%이하의 전력만 소비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리소코리아의 관계자는 “기존 HC시리즈의 우월성을 확장하면서 새 요소를 접목시켜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이며 풀 컬러 프린터 시장에서 우위를 다지고 강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고객

잉크테크, 은 필름 조명 반사판 개발

형광등이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에 씌워 조명도를 2배 가까이 높일 수 있는 은(Ag) 필름타입의 조명용 반사판이 개발됐다. 잉크테크는 최근 조명 부속장치 개발업체 이엔지테크놀러지와 공동으로 투명전자잉크를 활용한 ‘은 필름 타입의 조명용 반사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잉크테크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조명용 반사판은 은(Ag) 필름을 주 소재로, 기존 백색 도료처리 반사판이나 알루미늄 반사판으로는 반사시키기 어려운 후면 빛을 전면으로 반사시켜 빛 손실을 줄인 것이 특징. 이 반사판을 사용하면 LED 조명의 경우 50% 가량 효율성이 개선되고, 형광등의 경우 80% 이상 조도가 상승된다. 잉크테크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구 2개를 1개로 줄이거나, 36W급 전구를 15W급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서 “특히 형광등용 반사판의 경우 별다른 장치 투자없이 기존 시설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래 대표, 숙명여대서 문화마케팅 특강



(주)성도GL/㈜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의 김상래 대표이사는 지난 4월 13일 숙명여자대학교의 문화마케팅의 특별강사

로 초빙되어 '문화마케팅의 실제와 기업 마케팅을 위한 문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중소기업의 문화경영과 관련한 성도GL의 생생한 사례를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와 접근을 도왔으며 대학생들에게 기업과 조직, 사회공헌 등 경영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인쇄산업이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도GL / 솔루션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개최



(주)성도GL/(주)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5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예술마을 헤이리의 공간 Purple에서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성도GL은 한국 메세나협의회를 통하여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중소기업예술지원 매칭 펀드를 맺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회의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배종훈 지휘자의 지휘아래 테너 류정필과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협연 공연으로 이뤄졌으며 클래식 음악, 국내 가곡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주회는 우크라이나 대사부부를 비롯한 각국의 귀빈들이 참석, 국제적으로 공간 퍼플과 성도GL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공간 퍼플에서는 '최만린의 조각과 드로잉전'이 오픈 되어 최만린 조각가의 조각 50년사가 살아 숨 쉬는 상념의 흔적과 예술을 향한 애정이 듬뿍 녹아 든 작품들이 갤러리를 채우고 있다. 이 전시는 8월 2일까지 열린다.

성도GL/솔루션은 문화 행사 진행이 고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봄의 만월과 자연이 함께 이루어진 공간인 헤이리 마을의 공간 퍼플에서 개최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성도GL / 솔루션

New/EM Mask-KPCA show 2009 참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PCA show 2009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 유일, 최대의 전자회로



및 실장관련 전문 전시회인 이번 전시회는 전자산업 분야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PCB산업과 SMT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선진 기술 소개 및 기술 이전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제공했다는 평을 들었다. 국내외 관련 여러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도GL과 솔루션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다양하고 참신한 정보를 제공했다.

성도GL/솔루션의 중점이 된 제품은 새로운 기술의 후지필름 EM Mask 제품이며 이는 기존 제품의 높은 단가와 수정, 작업등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가격과 품질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일본 후지필름의 최고의 테크니컬 엔지니어를 초빙하여 직접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며 고객 대상의 세미나를 개최,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진 기술과 제품 정보 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참석 고객들에게 더 즐겁게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오키시스템즈, 조달시장 참여 가속화

한국오키시스템즈(대표 유동준)는 최근 열린 '200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자사의 조달우수 제품을 선보였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국내 프린터 사업을 시작한 한국오키시스템즈는 지난해 조달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이후 점유율을 높여왔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조달우수제품기업으로 구성,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보여 왔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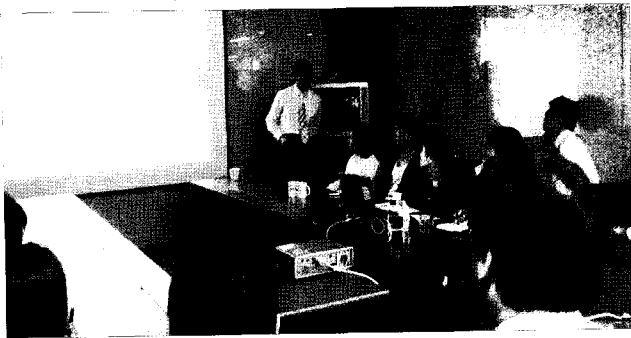
'200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친환경 녹색조달로 구현하고 우수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확대 전시되고 있다.

공무원이 '광개토태왕비' 서체 개발 시판

공무원이 '광개토태왕비체'라는 서체를 개발해 상품으로 출시했다. 경남도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중견 서예가 윤판기(54)씨는 서체 개발 전문회사인 폰트뱅크의 도움으로 고구려 글꼴의 특징이 담겨있는 광개토태왕비 서체를 '우리한자'라는 개념으로 개발해 최근 상품으로 내놨다. 폰트의 기본 글은 윤씨가 붓으로 쓴 글이 바탕이 됐으며 한자 4888자와 한글 2350자, 영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개토태왕비체는 모두 1775자의 한자로 이뤄져있지만 마모되거나 훼손돼 판독이 힘든 글자와 중복되는 글자를 제외하면 500여자에 불과하며 나머지 4300여자는 윤씨가 창작한 것이다. 윤씨가 개발한 서체는 창작물로 특허 등록을 출원한 상태다. 개발에 참여한 폰트뱅크 측은 "한자폰트는 한글폰트보다 글자 수도 많고 어려워 그동안 개발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면서 "한글 한용체와 한자 광개토태왕비체 폰트는 어울림이 뛰어나 개인용 컴퓨터는 물론 각종 출판, 인쇄, 광고(방송) 등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그파 코리아, 전직원 1분기 인포투어 열어



아그파코리아(주)(대표이사 권순기)는 지난 5월 18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1분기 인포 투어를 실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인포투어는 전직원 사내 교육 등을 통해 내실을 높이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낼 것을 다짐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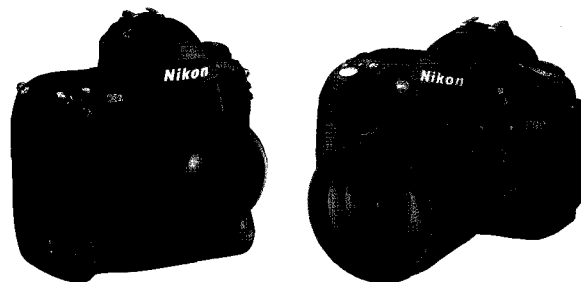
어도비, 인터넷 전자문서 서비스 '애크로벳닷컴'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4월 28일 어도비가 제공하는 온라인 전자문서 서비스인 '애크로벳닷컴'이 올해 1분기에만 신규 등록자 백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

혔다. 또한 '애크로벳닷컴'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포털 사이트인 '애크로벳닷컴 아이디어(<http://ideas.adobe.com>)'를 새롭게 도입하여 앞으로 서비스의 진화에 사용자들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6월 베타로 오픈된 '애크로벳닷컴'은 어도비의 플래시 플랫폼, PDF 및 다양한 기술이 총망라된 온라인 서비스이다. 애크로벳닷컴은 ▶전자문서의 공유 및 저장 ▶웹 상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일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채팅 하면서 문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웹 컨퍼런싱' ▶PDF 변환 ▶간단한 워드프로세스 기능 ▶5기가바이트(GB)의 문서공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애크로벳닷컴 아이디어'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게재하고 타 사용자의 의견에 투표를 하거나 쌍방향으로 의견 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_ www.adobe.com/kr
 애크로벳닷컴아이디어_ ideas.adobe.com

니콘, 'TIPA 어워드 2009' 2개 부문 수상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야마구치 노리아키)는 지난 5월 13일 자사의 DSLR 카메라 D3X(왼쪽)와 D90(오른쪽)이 유럽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TIPA 어워드 2009'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럽 이미지 출판 협회인 TIPA(Technical Image Press Association)는 유럽 지역 사진 및 이미징 출판 업계 내의 모든 잡지들에게 공개돼 있는 비영리 독립 전문 기구다. 프로페셔널 부문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D3X는 니콘에서 출시된 제품 중 최초로 2000만 화소가 넘는 고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모델이다. D3X는 고해상도와 뛰어난 저노이즈 성능을 갖추고 있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프로 사진 작가에게 적합하다. 또한 뛰어난 카메라 설계, 시야율 약 100%의 광학 파인더, 안정감이 있는 그립, 그리고 그 뛰어난 기동성과 조작성이 TIPA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드밴스드 부문 수상 모델인 D90은 전 세계 최초로 동영상 기능을 탑재한 DSLR 카메라다. 상위 기

종인 D300과 동등한 해상도와 화질을 보이는 12.3 메가픽셀의 CMOS 센서를 탑재했으며, 동영상 기능인 '디무비(D-Movie)' 기능을 갖추고 있다. TIPA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실현했다는 점을 D90의 선정 이유로 밝혔다.
 홈페이지_ www.nikon-image.co.kr

와콤, 디자인 교육기관 대상 '와콤 아카데미' 실시

와콤의 한국법인 한국와콤(대표 서석진)은 지난 5월 7일 전국의 디자인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특수 목적 학교, 대학교, 사설 교육기관과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와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와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디자인 전문학교 및 교육기관의 신청을 통해 새로 출시된 전문가급 태블릿 인투어스4를 특별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관련 학과나 학부가 있는 전국의 고등학교 및 특수 목적 학교, 디자인/멀티미디어/게임/시각정보 관련 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학교 이상의 대학 교육기관이나, 사설 교육기관 및 학원도 이번 와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_ www.wacomkorea.co.kr

산돌, 1천만원 상당 폰트 무상지원 캠페인

(주)산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석금호)은 각종 단체 및 학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천만원 상당의 폰트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폰트포유' 행사를 올해 말까지 전개한다. 폰트포유는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중소기업, 낡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단체,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디자인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선정된 단체는 1천만원 상당의 폰트 및 타이포그래피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산돌의 관계자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며, 더불어 한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발전과 바른 저작권 문화 확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폰트클럽 홈페이지를 통해서 폰트가 필요한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매월 한 단체를 선정하여 폰트와 타이포그래피 컨설팅에 대한 분석을 걸쳐 맞춤형 폰트가 제공된다.

홈페이지_ www.fontclub.co.kr

한국HP · 포토아비즈, 꽃 배달 포토카드 서비스



한국HP(대표 최준근)는 지난 5월 4일부터 디지털 프린팅 전문업체 포토아비즈(대표 송창훈)와 함께 G마켓(대표 구영배)에서 꽃 주문 시에 꽃과 함께 맞춤형 포토 카드를 배달하는 '꽃 배달 포토카드 서비스'를 실시했다. 한국HP와 포토아비즈의 '꽃 배달 포토카드 서비스'의 주문은 G마켓 꽃 배달 서비스에서 5월 동안 진행했으며 6월부터는 온라인 꽃 배달 전문업체 '유어-버스테이'에서도 주문할 수 있다.

한편 G마켓은 이번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다양한 포토카드 이벤트 프로모션을 실시포토카드 서비스가 좋은 이유를 남긴 댓글 고객 중 우수댓글을 선정, 어학 학습기(1명), 즉석추첨으로 범용쿠폰(3000명)을 지급했다. 또한 '포토카드 더블찬스 이벤트'로 포토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비즈 포토북 5000원 상품권(선착순 2000명), 추첨을 통해 HP컬러 레이저젯 CP1215프린터 (2명)를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HP, 제6기 HP글로벌 체험단 모집

한국HP는 HP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탐방 기회와 한국HP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제6기 HP 글로벌 체험단'을 지난 5월 22일까지 모집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대학생 대상의 글로벌 체험단은 글로벌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기획한 한국HP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제6기 HP 글로벌 체험단'은 학교와 집을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에서 PC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P PC브랜드 '파블리온'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아이디어와 오프라인 유통 매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모집했다. 1차 미션을 통과한 30개 팀은 6월 10일 HP 글로벌 체험단 온라인 페이지(www.hp.co.kr/global)와 한국HP의 공식 블로그 파블로(www.pavlo.co.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제지뉴스

Paper news



무림, '2010 달력디자인공모전' 개최

무림(대표 김인중)은 총 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2010 달력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무림 달력디자인공모전은 학생에서 일반인까지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전이며 자유로운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1년 14개월용(2009년 11월~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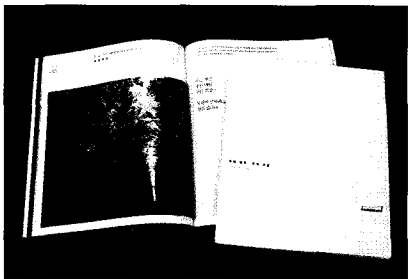


12월)으로 제작한다. 특히 '2010 무림달력디자인공모전'은 기존 회화 중심에서 사진, 공예, 조각 등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확장하고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출력물 제출수량을 줄였다.

홈페이지_ www.moorim.co.kr

무림, '2009 브로슈어'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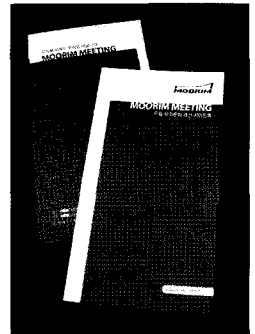
무림은 지난 4월 말 '2009 브로슈어'를 제작했다. 무림은 연혁 등 기업개요와 주요 생산제품은 물론 재무제표, 환경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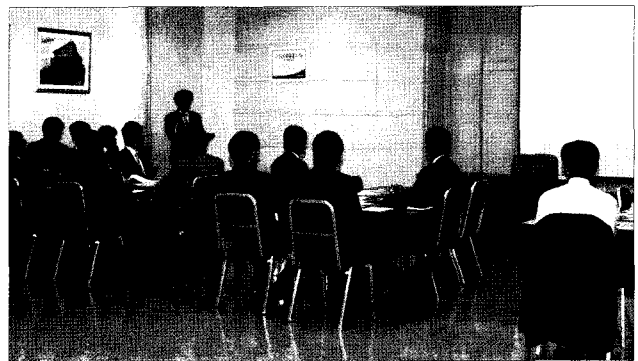
과 기술경영, 사회공헌 등 펄프·제지 부문의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회사 측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고객을 겨냥해 국, 영문으로 각각 제작한 '2009 브로슈어'는 디자인과 내용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사내 직원을 모델로 해 고객들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2011년 완공될 펄프·제지 일관화공장과 조림·펄프·제지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Global Pulp & Paper Company로의 새로운 'Vision 2011'을 소개, 시너지를 통한 무림의 비전을 그렸다.

무림, 회의 가이드북 제작

무림은 지난 5월 현업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회의 실용서인 회의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다. '무림 회의문화 개선 가이드북'은 회의의 A부터 Z까지 회의의 관한 모든 정보를 총 망라한 것으로 회의준비부터 회의종료 후까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정을 삽화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구성, 회의 시 지참할 수 있도록 28페이지의 얇고 작은 핸드북 사이즈로 제작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은 회의기회비용 산정법, 회의건강지수 측정법 등 다양한 회의 기술을 적절한 사례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 경영환경에 맞춘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현업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무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설명회 개최



무림은 지난 4월 17일 본사 리프레시룸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회계기준 도입배경 및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무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림그룹 전사 회계담당과 삼일회계법인 관계자 약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했다. 무림은 정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에 따라 지난 4월 7일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제지,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선정

한국제지(대표 전원중)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했으며 전국

에서 신청한 264개 업체를 대상으로 1, 2차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64개 업체(대기업 10개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대상자 경합은 약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심사기준이 중소기업을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재정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제지는 이번 재정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연 3400만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다양한 노사상생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제지 윤문섭 반장, 산업포장 수상



한국제지(대표 전원중) 완정파트의 윤문섭 반장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부에서 수여하는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데 윤문섭 반장은 특히 29년간 한국제지에 근무하면서 공정개선과 원가절감 활동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충북대·경상대 학생, 한국제지 온산공장 견학

지난 4월 28과 30일 충북대학교 학생 30여명과 경상대학교 학생 60명이 각각 한국제지 온산공장을 방문했다.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공학 전공 3학년 학생들은 2007년도부터 한국제지와 인연을 맺은 이후로 올해로 3년 연속 온산공장을 방문, 종이제조공정 현장을 견학했다. 경상대학교 환경임산학 전공 학생들은 경남누리사업단의 현장견학 및 실습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했다. 학생들은 현장견학 후 가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학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일진페이퍼, 일진가족한마당 개최



일진페이퍼(주)(대표이사 박경재)는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파주시 성동리에 소재한 일진페이퍼 파주공장에서 일진계열사가 모두 모여 일진가족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진페이퍼, 일진PMS, 일진개발, 일진태안농장 4개 계열사가 모인 가운데 남녀혼합 족구 및 피구대회를 각 계열사별 대항전으로 실시하였고 우승한 팀에게는 상금 수여식이 이뤄졌다.

이날 박경재 대표는 “평소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계열사가 모두 모여 뜻 깊은 단합의 시간이 되었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쇄업계 또한 전에 없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옛책이 들려주는 효이야기전

충북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은 오는 6월 28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09 소장유물 기획전 ‘옛 책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가장 많이 출판된 책 중 하나인 ‘삼강행실도’를 비롯해 ‘오륜행실도’, ‘불설대부모은중경’ 등 조상들이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간행·배포했던 고문서 및 고서 등 40여종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물중심의 어렵고 딱딱한 기존의 전시 분위기에서 벗어나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를 위해 ‘불설대부모은중경’의 변상도(불교 경전을 이해하기 쉽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림)에 색을 입히고, 옛 책에 실린 효행담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살린 만화로 재해석해 전시한다.

한국학술출판협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강희일)는 지난 5월 6일 서강대 옆 거구장 3층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강희일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학술 출판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협회 추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회원을 증대해 출판학에 대한 관심과 인문학의 힘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백석기 회장은 축사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면서 “이번 첫 정기총회를 계기로 서로가 단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로패 시상과 경과보고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가 있는 뒤 폐회를 선언했다.

출제모 정기세미나 개최



출제모(회장 김호문)는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에 위치한 (주)성도GL 세미나실에서 <인출판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 <출판의 변화에 따른 물류의 발전과 변화>라는 두 가지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세미나에는 (주)드림날개의 이동훈 영업본부장과 (주)날개물류의 김재수 기획본부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김호문 회장은 “출판사 창업자나 출판 창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출판 유통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정기적

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제모는 저자,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출판사 운영자/제작자/영업자, 출력소, 지업사, 인쇄사, 제작사 등과 같이 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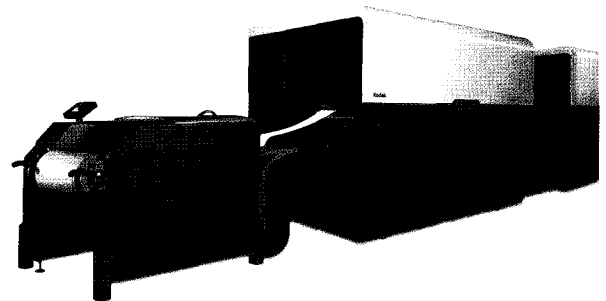
홈페이지_ daum.net/bookmakepeople

:: 해외뉴스

World news



크레딧 스위스, 버사마크 VL2000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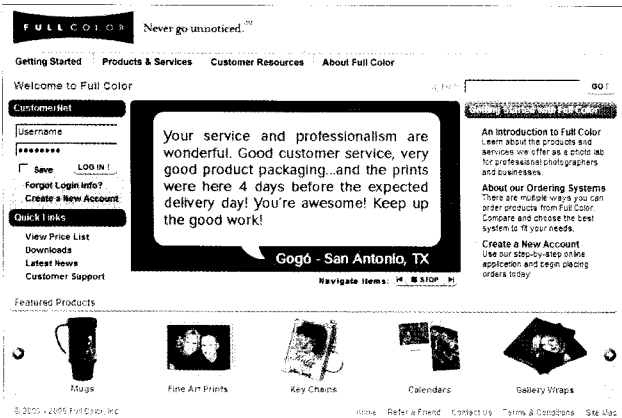


스위스의 금융업체인 크레딧 스위스는 유트리홈 행정센터내의 인쇄 센터에 최근 2대의 코닥 버사마크 VL2000 인쇄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인 금융 고객을 위한 풀컬러 인쇄의 금융보고서, 포트폴리오 일람표, 기타 일반문서 인쇄에 사용될 예정인 코닥의 컬러 인쇄 시스템들은 매일 작업하는 계좌 영수증을 제작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으며 각각 2-up 단면 인쇄방식으로 풀컬러 인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쇄센터는 연간 2백만 페이지의 A4용지를 특화된 개인고객을 위해 인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전체 분량의 98%는 롤투롤(roll to roll) 또는 롤투시트(roll to sheet) 방식의 연속지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인쇄 과정의 최고책임자인 랄프 뮈글러는 “지난해 우리 비즈니스 전략은 모든 고객대상 문서를 풀컬러 인쇄로 전환하기로 추진한 것이었으며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인 잉크젯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써 유럽 금융 시장에서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컬러인쇄시의 작업 소요시간 때문에 더 일찍 신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었으나 코닥의 버사마크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총 인쇄 물량의 60% 가량은 효과적으로 흑백인쇄가 가능해 바로 우리가 원하던 솔루션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풀컬러연구소, 코닥 넥스프레스 인쇄기 도입



텍사스의 델러스 전문사진연구소인 '풀컬러 연구소(Full Color lab)'는 개별 맞춤형 인쇄가 가능한 이점을 적극 활용, 코닥 넥스프레스 디지털인쇄기로 고품질의 완벽한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작업에는 코닥의 신모델인 넥스프레스 S클래스 디지털 컬러인쇄기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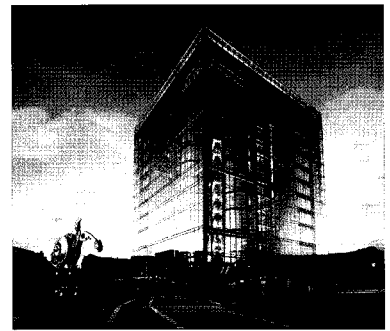
풀컬러연구소의 스티브 풀린 소장은 "코닥은 진정으로 포토그래픽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뛰어난 내구성과 색상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지 또한 알고 있다"며 "상업적으로도 만족할만한 고품질의 각종 적용 사양을 다양한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말했다. 서적과 카드, 캘린더 그리고 전문사진가를 위한 마케팅 톨로서의 사진 솔루션으로 특화된 이 서비스는 "넥스프레스의 독특한 옵션기능으로 경쟁 속에서 회사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고안했으며 고객에게 진가를 인정받는 새로운 고객맞춤형 요소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코닥의 넥스프레스 제5 이미지 유닛 솔루션에 코닥 넥스프레스 다차원 드라이 잉크를 장착하기만 하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며 인텔리전트 다차원 인쇄 솔루션은 넥스프레스로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인쇄의 형태를 더욱 다양화해 사진첩과 캘린더, 연하장, 초대장, 인증서, DM 같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용지에 인쇄가 가능하다.

하이델베르크, 제10회 여름학교 2009 개최

하이델베르크의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PMA)는 10회째 여름학교를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학교 참가자들은 오는 7월 13일부터 5일간 열리는 집중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여름학교는 구체적 전략과 각자의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플랜 뿐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 전략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

그측은 밝혔다.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 책임자인 버르드 슨은 "PMA 여름학교는 관리자가 압축된 트레이닝 코스에 참여하여 자신의 회사가 미래 도전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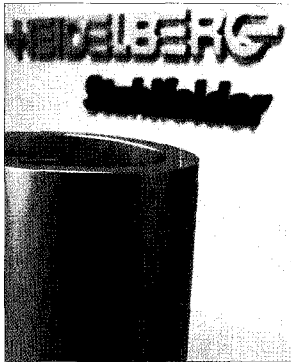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 패키징 인쇄에서 리더십 발휘



하이델베르크는 최근 21개국 140여 명이 자사의 비슬로흐-발도프 공장, 홀 11에서 개최된 프린트 미디어 센터 패키징 데이 이벤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스피드마스터 인쇄기 XL 75, XL 105 및 XL 162가 소개되었으며 각각의 인쇄기는 적합한 프리프레스와 후가공 기계에 연결되는 다양한 생산라인을 선보였다. 후가공은 특히 패키징 작업에서 중요하다. 그러한 배경으로 비슬로흐-발도프 공장 프린트 미디어 센터에서 소개된 통합 생산 라인에는 다이커터와 접착기가 다양한 구성과 다양한 자동화 수준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작업 능력을 제공했다.

비슬로흐-발도프에서 열린 프린트 미디어 센터 패키징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실제로 제시된 솔루션의 비용효율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프린트 미디어 센터의 책임자인 로런드 크래프는 "고객들은 어떻게 다양한 기계들과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자세히 보고자 하지만 개별 장치가 어떻게 윗단과 아랫단 생산 단계와 결합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 또한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다. 그것에 종종 부가적인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 자동사전 설정으로 시간을 절약하거나 에러를 줄이고 또한 모든 관여된 생산 비용을 알아내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이델베르크 루드비스부르크 공장 스탈폴더 생산 60년 맞아



하이델베르크는 루드비스부르크 공장에서 접지기를 생산한지 60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49년에 설립된 스탈사는 하이델베르크의 세계 판매 서비스 망을 통해 확장되기 전에는 독일 내에서만 판매가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스탈폴더라는 이름으로 접지

기와 동의어가 되었다.

지난 1960년 루드비스부르크로 이전한 이후 1968년에 1만 번째 접지기가 그곳에서 조립되었으며 2만 번째 기계는 20년 만인 1980년에 판매됐다. 첫 번째 완전 자동 발채 접지기는 1986년 드루파에서 소개되었으며 드루파 1995에 TD와 KD 시리즈의 새로운 발채 및 칼타입 접지기는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접지기는 스탈폴더 TH/KH로 드루파 2004에서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 3500대 이상의 기계가 세계에 판매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차이나프린트 참가



하이델베르크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이나프린트 2009에서 매엽 인쇄를 위한 종합적 솔루션을 선보였다. 하이델베르크는 3500 평방미터에 달하는 공간에 패키징 인쇄와 상업 인쇄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소개했다. 하이델베르크는 2008년 독일에서 소개된 '고성능(HEI Performance)' 과 '고부가가치(HEI Value)' 를 중심 모토로 드루파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차이나프린트 2009에서 국내 및 국외 방문객들에게 전시장을 선보였다. 하이델베르크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제적 수준에서도 회사의 이미지를 유지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동시에 전시회를 강한 중국 시장에 맞추어 5가지의 영역으로 분리된 소기업을 위한 상업 인쇄 솔루션, 대기업을 위한 상업 인쇄솔루션, 패키징 솔루션, 프리넬, 애니칼라로 구성했다.

전시회에서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PMA)는 "워크플로 통합", "친환경 인쇄" 및 "인쇄기 유지보수"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으며 이와 함께 최신의 인쇄 기술이 창조적 디자인을 지원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디어가 높은 가치의 인쇄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관해 특히 인쇄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차이나프린트는 중국 인쇄 산업에서 비중이 높은 대규모 전시회로 이 전시회는 1984년에 시작, 이번이 7회째 개최된 것이다

만로랜드, CHINAPRINT 2009 참가



만로랜드는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CHINAPRINT 2009에 성공적으로 참가했다. E1홀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전시회를 찾은 각국의 고객들에게 만로랜드의 고성능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협력사들과의 더욱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에 이바지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만로랜드 본사의 매엽 인쇄기 사업부의 총 책임자인 Markus Rall 박사는 특별 환영행사를 가졌고 만로랜드는 기계 가동 시현 설명회를 개최, 부스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만로랜드의 고성능 장비를 소개하고 생산 기술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총괄하는 만로랜드차이나는 만로랜드 브랜드를 이용한 우주선 발사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방문객들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만큼, 국제적인 규모의 인쇄전시회로 거듭나고 있는 CHINAPRINT 2009를 경험할 수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한국 고객 방문은 여러 가지 영향으로 2005년에 있었던 전시회보다 다소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만로랜드코리아(주)도 임직원을 파견, 한국 고객을 맞았다.